



이영희 | 초록미당영농조합
대표이사
(dylam@hanmail.net)

하천 습지에 자라는 돈되는 택사

1. 머리글

우리하천과 자연에서 자라는 식물은 한방과 농민에게 귀중한 부분을 차지한다. 자연 그대로 채취하여 나물로 쓰기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약재로 쓰이기도 하는 귀중한 자원이다. 하천 제방에 자라는 왕원추리의 새순은 나물로, 돌미나리는 약재와 나물로 이용되며 택사 뿌리는 약용과 한방차료로 이용되고 줄, 부들, 갈대등도 약재로 이용이 가능한 식물이다.

택사는 약용으로 이용이 가능하여 자원식물로 분류되어 있기도 하며 한방차로 이용되기도 한다. 남부지방에서 이모작으로 식재하여 겨울철에 수확을 하는 약용 식물로, 전남

화순 같은 경우 찰옥수수 후작으로 한약초로 이용되는 택사를 농가에서 재배하여 농가소득원으로 각광을 받는다. 생약 협동조합과 판매계약을 하여 소득작목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40년 전부터 한약재로 재배하기 시작했다. 한때는 미국으로 수출을 하기도 했으며, 겨울철에 수확을 하여 사용되는데 재배도 쉽고 관리도 쉽다.

2. 택사와 질경이 택사

▶ 택사

택사과의 여러해살이 풀로 하천의 습지에 잘 자라며 주로

▶ 택사

학명	<i>Alisma canaliculatum</i>
분포지역	한국 · 일본 · 중국 · 타이완
서식장소	하천가의 습지, 웅덩이
개화기	7~9월
결실기	10월
용도	뿌리는 약용(이뇨제, 수종, 임질)으로 쓰이며 수생 식물 식재에 관상용으로 사용한다.



연못이나 늪지에 자생하며 율타이라 하여 한약재로 이용되는 것이 택사이다. 잎이 좁고 잎자루에 날개가 달려있다. 벌개미취와 같이 잎이 길쭉하며 수심 10~20cm에서 잘 크고 개화한다.

또한 택사는 잡풀로 취급되는 벼풀과 비슷한 모양으로 생겨 우리의 논이나 도랑에서 서식지를 잃어가고 있다.

유독식물이라고는 하지만 잎은 택사엽, 근경은 택사, 과실은 택사실이라 하여 모두 약재로 이용된다. 잎은 생채로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뿌리는 잘 말려 차로 이용하기도 한다.

▶ 질경이 택사

습한 곳에서 잘 자라며 뿌리줄기는 짧고 수염뿌리가 나온다. 잎은 뿌리에서 뭉쳐 나오고 잎자루가 길며 달걀 모양의 타원형이고 길이가 5~10cm이며 5~7개의 나란하맥이 있고 끝이 뾰족하며 밑 부분이 둥글다. 잎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잎 양면에 털이 있다.

꽃모양은 잎 사이에서 나온 꽃줄기의 가지 끝에 산형꽃차례를 이루며 달린다. 꽃줄기는 높이가 60~90cm이고 가지가 돌려나며 가지에 작은 가지가 다시 돌려나고 가지 밑에는 3개의 포가 있다. 포는 바소풀이고 끝이 길게 뾰족하다.

꽃받침조각과 꽃잎은 각각 3개이고, 수술은 6개이며, 꽃밥은 황색이고, 암술은 많다. 열매는 수과이고 길이 2mm의 달걀을 거꾸로 세운 모양이며 편평하고 고리 모양으로 배열하며 뒷면에 2개의 얇은 골이 있다.

한방에서 덩이뿌리를 택사(澤瀉)라는 약재로 쓰는데, 이뇨 작용이 있고 혈당을 떨어뜨리며 항균 작용이 있어 방광

염·요도염·신장염·고혈압 등에 사용한다. 한국(전남 이북)·일본·중국 동북부·몽골·시베리아 동부에 분포한다.

3. 택사의 재배법

◆ 파종

파종은 4월 상순, 6월 상순에 하며 후작으로 재배시에는 7월 상순에 파종한다. 6-7일이면 발아하고 10일이면 완전 발아하며 파종 후 50일 정도면 이식이 가능하다.

◆ 정식

7월말 이전에 정식을 마쳐야 하며 20×25cm가 정식 간격으로 적당하다. 이식시에는 모가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얇게 심으며, 얇게 심은 모종이 구경이 크게 자란다.

◆ 관리

제초작업은 3회 정도 하며 8월 중순 이후에는 잎이 무성하여 제초 작업을 하지 않는다. 꽃대가 나오면 화경이 굳어지기 전에 자르며 수확전까지 계속 관리한다.

◆ 수확

잔뿌리 및 껍질을 제거한 덩이줄기를 약재로 이용하며 11월말 경 수확하는 것이 약효성분이 많다. 수확하여 물에 씻은 덩이뿌리는 7일 정도 햇볕에 말려 껍질과 줄기를 깎아 버리고 다시 햇볕에 완전히 말린다.

▶ 질경이 택사

학명	Alisma plantago-aquatica var. orientale
분포지역	한국(전남 이북) · 일본 · 중국 동북부 · 몽골 · 시베리아 동부
서식장소	연못가나 습지
개화기	7~8월
결실기	10월
용도	이뇨작용, 혈당을 떨어뜨리며 항균작용, 방광염 · 요도염 · 신장염에 좋다. 생태하천에 많이 식재.



◆ 택사와 질경이 택사 구분방법

택사는 잎자루가 길며 잎은 피침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길이가 10~30cm로 잎맥이 많고 양면에 털이 없다. 질경이 택사는 잎자루가 길며 잎은 둥근형태의 타원형으로 길이가 10~20cm로 잎맥이 별로 없으며 양면에 털이 있어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그림 1) 질경이 택사(좌)와 택사(우)

4. 맺음말

우리의 하천은 너무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있다.
우리는 이런 하천에 무엇을 해주었는가?

산업발달로 하천에 생활폐수, 생활쓰레기, 공장폐수 등 모든 것을 하천에 버렸고, 하천은 신음하는 우리의 식물들을 조급이라도 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는 이들의 노력을 알지도 못하며, 알아주지도 않았다.

우리 하천에 자라는 우리의 식물과 하천을 확대하고 당장에 눈앞의 이익만 급급하여 빨리빨리를 외치는 현실이 우리의 4대강을 멍들게 하고 있다. 일례로 생태하천을 조성한다고 제방과 저수호안, 고수호안을 밀어내고 우리의 자원인 자생식물을 버리고 양잔디와 일년초화로 덮어주고 생태복원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진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이 강산의 하천과 강을 이렇게 막 대해도 우리에게서 부끄러움이 없는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일이다. 어려워도 우리의 식물·우리의 자원이 제대로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이제라고 우리의 식물이 하천에 필요하고 자생하는 수종이 우점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지금이라도 찾아야 우리의 하천이 푸르고 아름다움이 넘치는 정다운 하천에 되지 않을까?